

# AI로 질환 분석까지... 이통사, 반려동물 케어 고객잡기 '치열'

반려동물 관련 요금제 붐물  
SKT '엑스칼리버' 진단 확대  
KT '반려견 디바이스팩' 선배  
LGU+ 반려견성향분석 '포동'

이동통신사들이 반려동물 케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AI(인공지능) 기반의 반려동물 엑스레이 분석 솔루션인 '엑스칼리버'를 선보인 후 최근 엑스칼리버 진단 범위 확대에 나섰다. KT는 최근 '반려견 디바이스팩'을 출시하고 반려동물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반려견성향분석 서비스인 '포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반려동물 관련 요금제도 출시하는 등 고객 확대에 나서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8조원 규모의 국내 펫시장 규모를 20조원 수준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도 최근 펫케어 산업에 뛰어들어 반려동물 케어 가정의 이용자를 사로잡고 있다.

SKT는 AI 기반 수의영상진단 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 진단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금제도 다양화한다.

엑스칼리버는 AI가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진단 결과를 제공



서울 소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엑스칼리버를 활용해 강아지의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고 진료를 하는 모습. /SKT

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를 돕는 동물 의료 AI 서비스다. 병원에서 촬영한 반려견의 엑스레이 사진을 엑스칼리버 전용 클라우드에 올리면 질환의 위치와 비정상 소견 등 분석 결과를 15초 내에 제공한다.

SKT는 기존 진단 범위였던 반려견의 근골격계 질환 7종, 흉부 질환 10종, 심장 크기 측정에 더해 이번에 복부 질환 16종을 추가하며 진단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SKT 관계자는 "복부 질환은 반려견이 가장 흔하게 걸리는 질병 중 하나로, 이번 복부 진단 추가로 반려견의 주요 질환을 대부분 탐지할 수 있게 돼 엑스

칼리버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엑스칼리버의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국내 대형 동물병원 수의사의 판독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근골격 질환은 86%, 흉부 질환은 88% 수준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복부 질환의 경우, 94%가 일치하는 등 질환 탐지에 있어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또 SKT는 엑스칼리버 요금제를 기존 월 33만원의 요금제에 추가해 베이직, 스탠다드 요금제 등 2종을 추가했다.

KT는 반려견 활동량을 분석하는 'IoT 웨어러블'과 적정 사료량 급여와 실

시간 영상음성 소통이 가능한 '자동급식기'를 제공하는 '반려견 디바이스팩'을 내놨다.

'반려견 디바이스팩'은 5G 초이스 요금제에서 '디바이스 초이스'를 가입하면 선택 가능하다. 반려견 디바이스 2종에 대한 할부원금을 24개월간 지원해 무료로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반려견 디바이스 '페보프로(pevoPro) 웨어러블'은 KT IoT 통신 기능을 탑재해 주기적으로 반려견 활동량 기록을 업로드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량에 따른 급식량이 반영된다. 카메라 내장 '펫위즈(PETWIZ)' 자동급식기를 통해 반려견의 적정 급식량을 조절해 배급해준다. 반려견 비만 관리 등 건강 관리도 도울 수 있다.

페보프로 웨어러블은 페보프로(pevo) 앱을 통해 최근 '페보 당박사' 서비스를 선보였다. 반려견의 활동, 산책, 휴식, 수면 등 건강에 밀접한 관련정보를 챗봇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로 제공한다. 건강을 위한 적절한 산책을 제안해 주기도 한다.

반려견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반려견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페보(pevo) 반려견 케어플랜'은 월 1만원으로 반려

견 의료비를 연 1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KT 관계자는 "반려견 디바이스팩은 반려견의 건강·섭식관리와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로 기획했다"며 "스마트워치처럼 이동통신을 활용해 활동·수면·휴식 등 기본 데이터를 밀착 수집하고 관리·리포트와 위치 확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월 1만원으로 통원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의료비 경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반려견 서비스 플랫폼인 '포동' 가입자를 29만명까지 확보했다. 포동은 반려견 성향분석 검사(DBTI), 견주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성향상담소', 반려견 행동교정을 위해 보호자와 훈련사를 매칭시켜주는 '포동스쿨'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또 반려견 훈련소인 '포동스쿨'을 각 지역에서 개소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4월 전문훈련사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반려견평생교육원과 손잡고 포동스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포동스쿨' 고객을 위한 반려견 훈련소를 공식 오픈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SKT, 6G 진화방향 담은 '청사진' 공개

아이온 글로벌 포럼의 기조연설  
6G 백서 등 기술 실증 결과 발표  
차세대 프론트홀 기술개발 선행

SK텔레콤이 글로벌 차세대 통신 표준 협의체인 아이온 글로벌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6세대(G) 이동통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2020년 1월 설립된 이 포럼에는 NTT, 소니,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125개 빅테크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

SKT는 오는 7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아이온 글로벌 포럼 정기 6차 멤버 회의에 참가해 ▲6G 핵심 요구사항과 진화 방향을 담은 SKT 6G 백서와 ▲6G 유선망을 대비한 저전력·고용량의 차세대 모바일 프론트홀 기술 실증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SKT는 이번 아이온 글로벌 포럼의 전체회의에서 첫날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8월 공개한 6G 백서의 주요 내용을



류탁기 SKT 인프라 기술담당이 5일 아이온 글로벌 포럼 정기 6차 멤버 회의에서 발표하는 모습. /SKT

소개하며, 6G 핵심 요구사항과 진화 방향 및 6G 표준화 과정에서의 아이온 연계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SKT는 5G 진화 및 6G 유선망을 대비한 저전력·고용량의 차세대 모바일 프론트홀 기술 개발 및 검증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월 파리에서 열린 아이온 글로벌 포럼 워크

샵에서 SKT가 제안했던 내용이며, 노키아·HFR과 함께 검증을 수행했다.

SKT는 이번 검증에서 기존 5G 프론트홀 기술 대비 소모전력을 1/3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고 공개했으며, 향후 오픈랜 기술과 연계한 차세대 모바일 프론트홀 기술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아이온 외에도 O-RAN 얼라이언스, NGMN(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s), 3GPP, ITU 등 여러 글로벌 표준화 단체 및 포럼에 활동중으로 특히, NGMN에 국내 통신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여해 6G 기술 백서를 발간하고, O-RAN 얼라이언스의 6G 연구그룹인 nGRG 산하 요구사항 연구반(RS-01)의 공동의장을 맡는 등 6G 초기 생태계 조성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 백서'를 발간하는 등 6G 미래 네트워크 준비를 추진 중이다. /채윤정 기자

## KT, 초거대 AI '믿음' 기술 고도화 추진

캐나다 벡터 연구소와 협력 논의

KT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연구기관인 캐나다 벡터 연구소(Vector Institute)와 5일 서울시 서초구 KT 융합기술원에서 초거대 AI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9월 양사가 AI 연구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해 체결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이날 KT AI2XL 연구소장 배순민 상무와 벡터 연구소 토니 가프니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는 초거대 AI '믿음(Mi:dm)'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KT와 벡터 연구소는 공동 AI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 계획을 점검하고,



(왼쪽부터) KT 기술경영담당 홍해천 상무, KT 제휴협력P-TF 배한철 상무, KT AI2XL 연구소장 배순민 상무, 벡터 연구소 토니 가프니 CEO, 벡터 연구소 워런 알리 디렉터가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초거대 AI 기반의 B2B 사업과 AI 모델의 발전을 목표로 한 교육과 컨설팅 내용도 논의했다. /채윤정 기자

## LGU+, 모빌리티 혁신 기업 키운다

3개 기업에 개발비 2억원 지원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는 강소기업들이 LG유플러스의 지원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여간 실시한 '제1회 차량용 앱 서비스 공모전'에서 1개 대상기업과 2개 우수상 기업을 선정하고, 총 2억원의 개발비

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워치마일'(실내 주차장 내비게이션 서비스)을 운영하는 스마트시티·자율주행 V2I 솔루션 전문기업 '베스텔라랩'이 대상을 차지했다.

차량용 앱 서비스 공모전은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LG유플러스와 현대모비스, 오비고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새

로운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커넥티드카 특화 서비스 선도사업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되는 행사다. LG유플러스는 ▲영상 ▲여행 ▲게임 ▲금융 등 7개 분야의 응모작 중 사업성·창의성·기술성 등 면밀한 평가를 거쳐 3개 기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 기업에는 1억원, 우수상 기업 두 곳에는 50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채윤정 기자

연세대와 기술 등 전문 역량 강화

SK㈜ C&C가 연세대학교와 손잡고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선다. SK㈜ C&C는 6일 연세대와 제조 분야 디지털 혁신을 리딩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융합엔지니어링학과' 석사 과정 신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서대문구연세대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SK㈜ C&C 유통영 사장 과 연세대 서승환 총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채윤정 기자

## SK(주) C&C, 디지털 제조분야 전문가 양성

이번 협약은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기술과 실무 능력을 모두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SK(주) C&C와 연세대가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SK그룹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 분야 전문 인재들을 양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석사 과정을 신설해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채윤정 기자